

# 결핵치료의 성공여부는 환자의 순응도에 따라...

류우진 / 결핵연구원 기술지원부장, 결핵 전문의

**순** 응도 (compliance)는 '의사의 치료처방이나 조언에 대한 환자의 순종하는 행동의 일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약제의 복용방법에 대한 지시만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방식을 바꾸려는 조언 즉 금연, 금주, 운동, 식이요법 등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 포함이 된다. 간단히 말하여, 순응도가 높다면 의사나 의료제공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응도가 낮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의 치료에서 환자의 순응도가 낮아 치료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예를 들면 장기적인 치료 관리가 요구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서의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결핵도 대표적인 질환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의 치료에서는 약제이외에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과 같은 환자의 생활방식도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순응도를 측정하기가 복잡하지만, 결핵의 경우는 약제 복용상태만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 순응도를 파악하기가 보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핵은 평생동안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질환도 아니며, 적절한 처방에 따른 약제를 주어진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복용만 하면 완치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는 치료실패와 재발이 쉬우며, 약제내성균의 전파,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망까지도 초래한다. 따라서 결핵환자의 순응도는 치료처방에 따라 약을 규칙적으로 주워진 기간 동안 복용하는 환자의 행동을 의미하며, 이것이 결핵치료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 결핵치료에 있어서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은 결핵약제보다도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결핵 치료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처방만을 적어주는 것으로서 의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적절한 치료처방 이외에 환자가 치료 기간 동안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에 의사가나 관련 의료 제공자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결핵치료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약제보다도 환자의 순응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결핵관리 상황에 관련하여 환자의 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음달까지 2회에 걸쳐 알아보기로 하자.

### 1. 순응도 측정

직접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을 검사하여 약제의 대사산물을 조사하여, 약복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리팜피신(RFP)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눈으로 소변등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정확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첫번째는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는 방법이다. 즉 균음전여부, 엑스선 소견의 호전 유무와 증상의 호전내지는 소실여부 등으로 환자의 순응도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신뢰성이 여러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두번째는 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순응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알아내어 그 해결책을 마련.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내원 예정날짜에 정확히 방문하는지 여부와 가정방문

시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의 수를 세어 순응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나, 환자가 정확히 내원 날짜에 나타나도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방문시 약을 버리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 2. 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래의 사항은 환자의 면담이나 설문서를 통하여 조사한 것으로 어떤 대조 실험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아니다.

#### 1) 의료기관

- 환자 의뢰 : 환자를 타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의뢰시킬 때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순응도가 높아진다. 막연히 병의원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보다 특정인에게 직접 의뢰하는 것이 순응도를 높인다.

- 대기시간 : 진료받고자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다음 내원 약속에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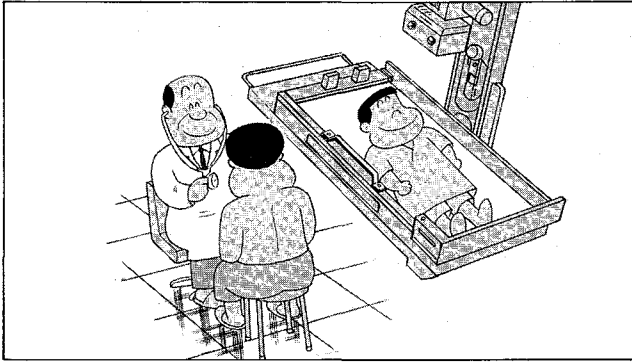
- 진료시간 : 진료시간이 짧아 환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순응도는 낮아진다.

- 위치와 거리 : 환자가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거나 편리하지 않을 경우도 순응도는 떨어진다.

- 청결도 : 깨끗할수록 순응도는 높다.

#### 2) 치료약제

- 치료기간 : 치료기간이 길수록 환자



의 순응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6개월 단기화학치료 처방이 9개월 처방보다 우수한 이유중의 하나는 환자의 중도탈락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미리 정확한 치료기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반응이 좋으면 6개월로 치료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18개월 이상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약제의 수 : 복용해야 할 약제의 수가 적을수록 환자의 순응도는 높아지고 잘못 복용할 위험이 낮아진다. 외국에는 이소니아지드 (INH) + RFP을 혼합한 약제나, 여기에 피라지나마이드까지 포함시킨 간단한 정제등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나를 처방할 때 비타민 B6(피리독신)를 필요로 하는 환자(임산부, 노인, 만성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외의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복용횟수 : 복용 횟수가 적을수록 환자의 순응도가 높다.

- 약제 부작용 : 부작용이 많을수록

환자의 순응도는 낮을 것으로 여겨지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순응도가 높은 환자군과 순응도가 낮은 환자군에서 약제부작용을 보이는 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약제부작용은 환자의 순응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어떤 부작용이든지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하라고 하여 해결해준다.

- 치료비 : 당연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결핵관리에서는 약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 비경구적 투여 : 스트렙토마이신 같은 주사 약제는 경구용 약제보다 주사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환자에게는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주사를 맞는 것이 더 불편을 초래하여 그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3) 환자

- 생활습관 : 약제의 복용시간을 하루

일과중 일정한 시간에 고정하는 것이 환자의 순응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식사 또는 환자가 차를 마시는 시간등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자주 여행을 하는 환자, 실직자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하루 일과가 일정치 않거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순응도가 떨어진다.

- 가족이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 : 가족이나 친구 또는 사회 단체로부터 치료에 대하여 안정적인 보조를 받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도 순응도가 높다.

- 자제력 :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순응도가 높다.

-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 환자의 성, 나이,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인 수준, 직업, 소득 수준 등은 순응도와 일정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진국이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충분치 못한 경우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순응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낮 시간에 일하여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 노동자들은 하루 일을 중단하면서 보건소나 병의원에 내원하기가 어려우므로 내원 약속일을 지키기가 힘들다.

- 질환의 정도 : 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치료에 잘 따른다.

- 증상 :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면 약 복용을 중단하는 예가 많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핵환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4) 의료제공자와 환자사이의 관계  
환자와 의료제공자 사이의 관계의 질(quality)은 순응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의사나 의료제공자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주도하는 입장에 있으며, 환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도록 하고 치료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명확하고 솔직하면서 믿음직한 치료설명은 환자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의료제공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효과적으로 주면서 동시에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도 얻어야 한다. 환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도 하지만 환자가 말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또는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귀가 아닌 눈으로 알아야 한다.

즉 의료제공자는 환자의 신체언어(body language)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환자의 심리상태(거부감, 근심, 불안감...)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가 오해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환자의 거부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부딪혀 해결하고 환자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환자를 무시하고 자기보다 열등하고 하찮으며 자신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귀찮은 존재라고 간주를 하면 환자는 절대로 의사나 의료제공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